

멜로우 키친 댕큐 콘서트 '위로'

재즈 팝 색소포니스트 '멜로우 키친', 21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게스트 홍이삭과 공연

이음음악협회와 사단법인 더문화는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효자동 문화공간 이룸에서 코로나19 지친 전주시민을 위한 '멜로우 키친 댕큐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멜로우키친 댕큐 콘서트'는 색소포니스트 멜로우 키친과 그가 이끄는 밴드와 함께 게스트 홍이삭의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멜로우 키친은 재즈의 장르를 넘나들며 따뜻한 선율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앨범의 모든 곡을 자신이 작곡 및 편곡하며 프로듀싱과 작곡, 편곡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또한,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남다른 퍼포먼스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화제가 됐던 MSG워너비의 '나를 아는 사람'에서도 색소폰 솔로 연주로 대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게스트로 출연하는 홍이삭은 JTBC '슈퍼밴드',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실력과 뮤지션이며, 담담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주의 보컬리스트라는 별명을 얻은 한편 파워풀한 록 음악까지 소화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낸 실력파이다.

멜로우키친 댕큐 콘서트는 '위로'라는 주제로 연주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전주 시민들에게 우리 가곡인 '할머니 집', '가을비' 등을 연주해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한다.



멜로우 키친 댕큐 콘서트 포스터.

다. 이어지는 무대는 게스트 홍이삭과 함께 분위기를 바꿔 유영 드라마인 '응답하라 1988'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노래인 '걱정말아요 그대', 어쿠트브의 '나쁜지 않아', 멜로우키친의 '저 별처럼'으로 호흡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멜로우 키친이 편곡한 손의 'Way Back Home', 크러쉬의 'Beautiful day'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한 무대를 꾸며냈다. 멜로우키친이 편곡한 곡은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세련된 사운드와 감미로운 멜로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멜로우키친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으며, 홍이삭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해져 더욱 화려한 음악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무대에서 전방위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반 임재신, 기타 박서현이 그에 걸맞은 연주를 곁들이며 조화를 이뤄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사전예매를 통해 쿠프(앱)를 이용한 점종양로 확인자에 한해서만 관람 가능하다. 사전예매는 인터넷 예매와 전화예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문화공간 이룸으로 문의(063-223-5323)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공간 이룸 홈페이지(www.umar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음음악협회는 전라북도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전 연령층을 위한 음악회, 더 나아가서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음악 뿐 아니라 미술, 시, 인문학 등과 결합한 강의와 전라북도를 알릴 연주회 등을 기획 및 계획 중이다.

이음음악협회장 박성현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전주 시민들에게 이번 공연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SRT 어워드 '최고의 여행지' 선정

익산시가 SRT 탑승객과 전문가들이 뽑은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돼 '2021 SRT 어워드'를 수상했다.

SRT 매거진은 매년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를 개최하고 SRT탑승객 독자설문,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익산을 비롯한 최고의 여행지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연간 3600만명이 이용하는 SRT 탑승객들 중 9,231명의 독자설문이 반영돼 일반인 인지도를 포함한 설문으로 관광도시 익산의 위상을 증명한 것으로 더욱 뜻깊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국립익산 박물관 등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큰 인기를 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수상 지역 중 사천명사로 큰 인기를 누리는 인스타그래ם 성지로 미륵사지가 소개됐다. 미륵사지는 삼국시대 최대사찰로 백제 무왕대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관광공사에서 2020 한국관광의 발로 선정될 만큼 아름답고 가치있는 문화재이자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SRT매거진에서 인스타그래ם 성지로 표현할 만큼 어느곳에서 찍어도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이색교육체험 교도소세트장, 전국 유일 보석박물관과 어린이 놀이 시설 다이노 키즈 월드를 품고 있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수려한 야간 경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동공원 등 이색관광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인정

김희수 씨, 아버지 김중대 선생 대를 이어... 4대째 가업 계승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의 보유자로 김희수 씨(사진)가 대를 이어 보유자로 인정됐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輪圖匠)' 보유자로 김희수(金熙秀, 전북 고창군 성내면)씨를 인정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 김중대 선생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대를 잇게 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은 풍수가, 천문학자, 여행가, 어부, 지관(地官) 등의 필수품으로 '패철(佩鐵)', '지남철(指南鐵)', '나경(羅經)'이라고 불리는 정통 나침반인 윤도(輪圖)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장인(匠人)을 말한다.

윤도는 작은 원반 안에 우주 24방위를 중앙 지남철 주위에 새겨넣고 정확한 음택, 양택 자리를 확인하는 전통 생활도구로,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희수 씨는 고향인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낙산 마을에서 300여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윤도의 전통 기술을 잇고 있다. 증조부 때부터 4대째 가업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윤도 제작 기술과 함께 제작 공구와 윤도판 등도 그대로 전수되어 왔다. 또한 마을 뒷산의 거북바위에서 남북향을 정확히 확인해 윤도를 만들어 왔다.

그는 윤도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이전 보유자인 아버지 김중대 씨로부터 전통 기법을 전수받아 40여년간 윤도 제작기술을 연마하여 윤도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경별 재료, 도구 사용에 있어서도 전통성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평철(平鐵)과 부



채의 자루 끝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식인 선추(扇鍾)의 제작 기술이 숙련되고 완성도가 높았다.

특히 딱딱한 대추나무에 오목새김(음각: 陰刻)하여 글자를 새기는 각자(刻字) 작업과 강철을 깎아 자침을 만든 후 윤도에 얹는 작업이 매우 섬세하고 정확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창군과 문화재청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무형문화재 시연, 교육, 체험, 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윤도를 홍보하고 전승하려는 많은 노력들도 인정받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전 보유자인 김중대 씨는 그동안 윤도장의 전승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고창군은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가업을 계승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는 김중대·김희수 선생께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전통 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원광대, '제5회 소태산 영화제' 성료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공동 주최한 2021 제5회 소태산 영화제가 폐막했다고 8일 밝혔다.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개교 75주년 및 송산 박길진 초대 총장 열반 35주기를 맞아 송산 총장의 추모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이 영화제는 지역사회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원불교사상 연구원 등이 주관했다.

영화제는 마음 가까이 영상 공모전, 영화 상영회, 상영작 감독 및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대화하는 GV(관객과의 대화)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특히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한 '2021 마음 가까이 영상 공모전'은 전국의 청소년과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총 55개 팀이 참가해 서준석 씨가 '플라스틱 먹는 인간들' 영상으로 대상을 받았다.

또 김한별 씨의 '만나서 반가워'가 최우수상,

이태양 씨의 '섬 친구를 그리다'가 우수상, 차은혁 씨의 '데칼코마니'와 임진환 씨의 'Pandemic(팬데믹)'이 각각 우수상에 올랐다.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는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를 비롯해 생명과 소통에 대한 여러 시선을 담은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전 테마파크 온라인 아카이빙 전시회도 병행됐다.

원광대 초대 총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한 송산 박길진 총장을 임체적으로 조명한 7편의 다큐멘터리도 공개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WE GO, 美 GO 함께 가는 아름다움, 후원의 밤' 개최

(재)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WE

GO, 美 GO 함께 가는 아름다움, 후원의 밤'이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지역예술인들과 도내기업 간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형 메세나 사업 플랫폼을 조성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WE GO, 美 GO 함께 가는 아름다움, 후원의 밤' 행사는 ▲뉴미디어 아트 시연, ▲기조 강연(김성규,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 한미회계법인 부회장)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 ▲기타금 전담식(전라북도립국악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예수병원) ▲타악연희원 아귀의 신명나는 퍼포먼스와 왕기서 명창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를 계기로 도내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재단이 협력체계를 마련해 전북형 메세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재단 문예진흥팀 담당(230-7418)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